변용 추리소설의 소설적 의의*

-『최후의 증인』과 「소문의 벽」의 비교를 중심으로

임성래·이정옥**

1. 문제제기
2. 살인 동기의 변화와 고전적 공식의 일탈
3. 변용 추리소설과 탐색소설의 비교
4. 맺음말

국문요약

본고의 목적은 변용 추리소설의 소설적 의의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의 대표적인 추리소설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 김성종의『최후의 증인』이 고전적 추리소설과 다른 점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변용 추리소설과 현대소설과 만나는 지점을 밝히기 위해 대표적인 탐색소설로 알려진 이청준의「소문의 벽」과 비교하였다.『최후의 증인』은 당대 사회 현실에 밀착하여 범죄의 원인을 탐색해가는 고전적 추리소설의 요소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순적 현대사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접합시켜 놓은 변용 추리소설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추리소설이 지니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간 삶의 복잡한 양상에 대한 통찰적 시각을 담지하고 있다.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Post-Doc 연구지원비를 받아 작성한 것임.
** 임성래: 연세대학교 문리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정옥: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교수

탐색소설「소문의 벽」에서는 탐정에 해당하는 인물과 범인에 해당하는 인물의 서사가 구분되어 있다. 또한 사건의 전말이 전적으로 탐색하는 인물에 의해 밝혀진다는 점에서 추리소설적 특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변용 추리소설과 달리, 선악의 이분법적인 멜로드라마 구도를 벗어나 있다. 또한 추리소설의 독자들이 기대하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감상적 환상은 차단되고, 현실에 대한 냉철한 통찰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이 변용 추리소설은 고전적 추리소설의 공식을 해체하고 추리소설의 범위를 넓힌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탐색소설과 같이 삶이 담고 있는 본질을 탐색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근·현대 소설의 탐색적 서사방식은, 대부분 탐색과 추적이라는 추리소설의 서사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소설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변용 추리소설은 소설의 범위를 확장시켜 놓는데 기여했다는 소설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고전적 추리소설, 변용 추리소설, 탐색소설, 살인의 동기, 공식의 일탈

1. 문제제기

최근 몇 년 사이에 추리소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본격소설보다는 가벼운 대중서를 즐겨 읽는 중산층 독자들이 독서시장에 결집하기 시작하였던 2002년부터 셜록 홈즈 시리즈, 괴도 뤼팽 시리즈 등 서구의 고전적 추리소설이 꾸준히 출간·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두고 추리소설 작가 이상우는 "추리소설의 신르네상스를 맞이하는 기분"이라고 표현했다.[1)]

그러나 추리소설의 독자들 대부분이 인터넷과 게임을 즐기는 신세대이고,

1) 이상우,「추리소설, 다시 독자의 관심 속으로」,『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한국추리작가협회 엮음, 태동출판사, 2002, 6쪽.

이들의 독서 취향이 서구의 고전적 추리소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런 관심이 우리나라 추리소설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수요의 증가에 따라 추리소설의 시장이 활성화되면 이에 자극 받은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더욱 왕성해질 것이고, 출판 기획자들은 다양한 기획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품을 수 있다. 또한 양질 전환의 법칙에 따라 작가와 작품이 많아지면, 자연이 추리소설의 폭과 깊이가 확장될 것이고 추리소설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해질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다시 작품 생산에 자극을 주는 순환적 질서에 따라 추리소설의 양적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해진다.

독자들이 서구의 고전적 추리소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추리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충실하게 지키는 경향과 관련이 깊다. 즉 고전적 추리소설은 '누구에 의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추리해야 하는, <수수께끼 제시 → 논리적 추리과정 → 수수께끼 풀기>라는 공식을 반드시 지키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는, 사건의 주체인 범인과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역할을 맡은, 곧 탐색의 주체인 탐정 사이의 대립적 서사가 내포되어 있다. 또 여기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탐정의 뒤를 쫓아가는 독자와, 독자의 호기심을 잃지 않도록 유도하는 작가 사이에 벌어지는 지적 게임이 중첩되어 있다. 서구의 고전적 추리소설은 이러한 '게임의 규칙'을 철저히 엄수한다. 서두에서는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첫 대목부터 강력하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촉발된 호기심을 고조시켜 독자를 더욱더 궁금증에 빠져들게 만듦으로써 흥미진진하게 그 궁금증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만든다. 결말에 가서는 사건의 전모와 인물간의 갈등, 상황 설정이 엄밀하게 맞아떨어지게 만든다. 한마디로 범죄적인 교활함과 분석적인 지혜가 절묘하게 들어맞는 '형식논리가 최상의 규칙인 장르문학'[2]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고전적 추리소설에서는 탐정이 범인을 찾는 수수께끼 풀이의 과정이라는 공식(formula)이 강조되기 때문에, 개별 인물의 개성이나 심리적 내면이 들어설 곳이 없는 비심리적 서사체를 지향한다.[3] 탐정과 범인은 단지 자기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탐정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언제나 사회적 혼란과 무관하게 체제를 수호하는 인물이고, 범인은 언제나 악의 축에 속해 있는 인물로 고정되어 있다. 이처럼 관습화된 범죄와 처벌 체계를 강조하는 고전적 추리소설은 물신화된 죽음, 형식화된 범죄수사 과정, 분석능력만으로 평가되는 인간, 파편화된 합리성, 사회 집단과 계층 간의 갈등을 개인 간의 갈등으로 대치하는 것 등과 같은 부르주아 사회의 모순점을 감추고 무마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압축해 놓은 서사체에 해당한다.[4]

반면에 변용 추리소설에서는 탐정과 범인이 벌이는 게임 자체보다는 탐정과 범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인물들의 내면세계가 부각되는 심리적 서사체로 기울어진다. 따라서 탐정과 범인은 고전적 추리소설과 달리 공식화된 역할에서 벗어나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인물이거나 개성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수수께끼 풀이 과정인 플롯의 일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 김래성이 일찍이 주장한 바와 같이 변용 추리소설은 추리만을 강조하는 협의의 추리소설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적 면모에 대한 묘사나 사회현실을 반영한다.[5] 독자들로부터 변용 추리소설이 고전적 추리소설의 문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의 변용 추리소설은 서구의 고전적 추리소설과 어떻게 다른가? 또 고전적 추리소설의 공식으로부터 왜 일탈하고 있는가? 하는

2) 에르네스트 만델, 이동연 역, 『즐거운 살인 : 범죄소설의 사회사』, 이후, 2001, 54-55쪽.
3) 토로로프, 신동욱 역,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77-81쪽.
4) 에르네스트 만델, 앞의 책, 79-98쪽.
5) 김래성, 「탐정소설론」, 『새벽』, 1956. 3, 12쪽.

의문이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장에서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을 대상으로 고전적 추리소설의 공식과 이 작품의 공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사회 상황에 맞게 변용된 한국적 추리소설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추리소설 연구의 대부분이 서구 추리소설만을 좋아하는 독자들의 편중된 독서 취향과 궤를 같이하여 고전적 공식을 밝히고 확인하는 차원에 멈추어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추리소설의 문학적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추리소설의 변용 기법이나 공식의 변용성이 지니는 소설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3장에서 현대소설 가운데 대표적인 탐색소설로 알려진 이청준의 「소문의 벽」과 『최후의 증인』을 비교함으로써 변용 추리소설이 현대소설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인 탐색소설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변용 추리소설의 소설적 의의와 그 한계가 밝혀질 것이다.

2. 살인 동기의 변화와 고전적 공식의 일탈

추리소설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는 살인의 동기가 달라진 데 있다.[6] 이런 맥락에서 추리소설의 발전 과정은 범죄 자체의 역사를 반영한다는 주장이나, 추리소설을 연구하기 위해서 문학사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7]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고전적 추리소설과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이 씌어진 사회문화적 배경과 살인의 동기를 비교해보고, 이를

6) 정규웅, 『추리소설의 세계』, 살림, 2003, 76쪽.
7) 에르네스트 만델, 앞의 책, 11면, 63쪽.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추리소설로 손꼽히는『최후의 증인』이 고전적 추리소설의 공식으로부터 일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보고자 한다.

서구의 고전적 추리소설은 19세기의 범죄소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범죄소설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부르주아 사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빈곤층의 각종 범죄가 일상화되었던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것이다. 즉 19세기의 서구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착취에 맞서는 반란자들의 범죄가 날로 심화되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시작하자 전 사회적으로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부르주아들은 사유 재산을 보호할 목적에서 범죄자로 보이는 계급들을 감시하기 위해 경찰제도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범죄소설이 대중문화의 한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19세기의 세태를 반영하는 범죄소설에서는, 부르주아 사회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범죄는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것'으로 그려졌으며, 개인의 안전은 '좋은 것'이라는 양극화가 정립된다. 이후 양차 세계대전 시기에 활성화되었던 고전적 추리소설은 19세기의 범죄소설보다 부르주아적 합리성을 훨씬 잘 축약해 놓은 문학으로 발전하면서, 합리성을 전복시키는 비합리적인 살인사건과 비합리적인 소란 후에 다시 회복되는 합리성을 지향하는 구조로 형식화되었다.[8] 이러한 내용이 추리소설의 공식으로 굳어지면서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의 서사와 범죄를 추적하는 탐정에 의한 추리의 서사로 정착되었고, 범죄는 언제나 탐정에 의해 낱낱이 밝혀짐으로써 탐정이 항상 승리하는 폐쇄적 구조로 형식화되었다.[9]

이와 같이 고전적 추리소설에서 살인의 동기는 부르주아 사회에 불만을 가진 불온한 개인의 이해관계와 정서적 충돌에서 비롯된다. 범인은 현실에서

8) 위의 책, 13-98쪽.
9) 월터 옹, 이기우・임명진 역,『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3, 220-225쪽.

있을 법한 잘못된 도덕적 질서를 파괴하고 진정한 도덕적 질서를 새롭게 수립하기 위한 모험에서 범죄에 발을 들여놓게 되거나, 또는 겉으로 평화롭고 고요해 보이는 사회의 이면에 숨겨진 음모를 밝혀냄으로써 기존의 질서가 전복되고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범죄에 가담한다. 그러나 언제나 탐정에 의해 범인의 모험적 기도는 범죄로 낙인찍히고 만다. 결말에 가서 범인들은 항상 탐정에게 체포되고, 탐정이 몸담고 있는 부르주아적 정의가 실현되며,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범죄는 탐정과 범죄자 사이의 지혜의 대결을 위한 '즐거운 살인'이 될 뿐이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뿐이다.[10]

비록 탐정과 범인 사이의 지적 게임에서 언제나 탐정이 이기는 구조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비도덕적인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범인의 의지는 현실의 지배 질서가 더 이상 존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독자들의 열망을 담아낸다. 아울러 범인이 범죄의 과정에 발을 들여놓게 된 동기를 알게 되면서 독자들은 범인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된다. 대개 이들 범인은 기존의 질서에서 피해를 입은 자들로서 새로운 도덕적 질서가 필요함을 절감한 약자들이기 때문에, 범인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은 커질 수 있다. 고전적 추리소설 텍스트는 이와 같이 독자들이 가지는 사회 질서에 대한 분노와 이 사회 질서가 변화되리라는 희망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이중적 측면을 지닌다.[11] 겉으로는 선한 인물로 가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독자의 예상을 깨고 범인임이 밝혀질 때 독자들은 기대가 허물어지는 배반감을 갖지만, 배반감과 연민을 동반한 이 오락적 즐거움은 단순히 현실 도피적인 소극적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리를 수반하는 지적 유희의 한 형태이며 나아가 새로운 질서에 대한 대중 독자들

10) 에르네스트 만델, 앞의 책, 13-77쪽.

11) Jerry Palmer, *Potboilers : Methods, Concepts and Case Studies in Popular Fiction,* Routledge: London & New York, 1991. p.110

의 염원을 보상해 주는 오락적 환상성을 지닌다.

반면에 분단 이후 혼란한 한국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추리 기법으로 다룬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에서는 고전적 추리소설이 가진 이런 서구적 배경과의 차이 때문에 추리소설적 범죄가 오락이 되거나 게임이 될 수 없었다. 즉 『최후의 증인』에서 살인의 동기는, 왜곡되고 굴절된 우리의 현대사에 닿아 있기 때문에 서구의 고전적 추리소설과 달리 결코 '즐거운 살인'이 될 수 없었다.

『최후의 증인』에서는 1950,60년대 추리소설과 마찬가지로, 범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최초의 동기가 분단 이후 우리 사회 현실에서 있을 법한 잘못된 도덕적 질서를 파괴하고 진정한 도덕적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모험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범죄에 가담한 인물들은 가해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희생자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인물이라 하더라도 당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에 진정한 범인은 살인 등을 저지른 개인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당대 사회 자체가 된다.[12]

따라서 탐정과 범인 역시 고전적 추리소설의 공식에서 벗어나 있다. 우선 텍스트의 서두에 등장하는 황바우는 살인자로 지목되어 20여 년 동안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범죄의 서사'의 주체가 될 만큼 흉악한 살인자와는 거리가 먼 순박한 인물로 그려진다. "선량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이용당해 왔고, 또 그것 때문에 오래도록 고생을 겪어 왔고, 결코 악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사람"[13]이라는 서술자의 단정적인 정보를 통하여, 그가 범인일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된다. 이런 그가 살인자로 복역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부터, 독자들은 그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과정에 모종의 음모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

12) 이정옥, 「1950,60년대 추리소설의 구조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 15집 . 2001. 6, 19쪽 .
13) 김성종, 『최후의 증인』 상권, 남도출판사, 1977, 24쪽 .

황바우가 범인이 된 정황은, 분단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포착하기 위해 온갖 횡포와 폭력을 휘둘렀던 왜곡된 현대사의 질곡과 맞닿아 있다. 황바우는 빨치산에 부역한 인물이지만, 사상과는 거리가 먼 순박하고 인정이 넘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손지혜의 미모와 재산을 탐낸 양달수의 모략에 의해 한동주라는 또 다른 부역인을 살인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피살자인 두 인물에 대해서는 비도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피살의 이유가 그들의 부도덕한 행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전남 문창에서 살해된 양달수는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致富)한 사람이다. 6·25 직후 청년단장을 지냈던 양달수는 투항하는 빨치산 덕분에 '한 밑천' 잡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손지혜의 미모와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방해물인 황바우를 살인자로 몰았던 몰염치한 인물이다. 또한 서울에서 살해된 변호사 김중엽 역시 골동품을 수집하여 몰래 일본에 파는 반민족적 인물이며, 일본인을 상대하는 비밀 요정으로 돈을 축적하는 비도덕적 인물이다. 더욱이 입신출세에 눈이 어두웠던 김중엽은 양달수와의 어두운 뒷거래를 통하여 황바우를 부역자와 살인자로 몰았던 부패한 권력자이다. 따라서 황바우의 아들 황태영이 양달수와 김중엽을 죽인 동기는, 황태영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부패의 원흉들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두 사람을 죽인 범인일지라도, 그는 고전적 추리소설에서와 달리 악한 인물로 비난받지 않는다. 오히려 탐정과 독자들로부터 연민과 동정을 받게 된다.

한편 탐정에 해당하는 인물 역시 소설적 세계를 통괄하는 법질서를 온존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고전적 추리소설의 공식에서 완전히 일탈한, 독특한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서구와 달리 탐정이란 직업이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찰이 탐정의 역할을 대신한다.

경찰 오병호는 범인 탐색을 충실히 이행하는 점에서는 고전적 추리소설의 탐정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적 법질서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진 냉소주의자인 점에서 범인을 추적하는 데 몰두해 있는 고전적 추리소설의 창백한 탐정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는 명문대학 출신으로 한 때 '수사 계통에서 독자적인 솜씨를 발휘하여 수상한 경력도 여러 번 있는' 유능한 경찰이었지만, 현재는 경찰이라는 직업의식조차 없는 염세적 인물이다. 오히려 "골치 아픈 사건이 없는 한적한 벽촌에 묻혀 은둔이나 다름없는 편안한 생활을 찾"는 무기력한 소시민에 가깝다. 그는 타락한 세상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는가 하면 자신을 비롯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연민을 자주 털어놓는 주정적(主情的) 인물이다. 오병호가 불행한 자들에 대해 갖는 연민은 그 역시 소외된 자들의 불행을 공유하고 있는 자라는 동질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약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는 오병호의 인식적 태도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서는 리얼리즘 소설의 인물과 닮아 있다.[14] 또한 오병호는 타락한 세계의 법질서를 거부하고 부패한 사회 체제에 저항하는 비정파 추리소설의 고독한 탐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15]

황바우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원인이 양달수와 김중엽이 합작한 간교한 음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 오병호는, 간악한 강자들이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약자들을 이용하고 억압하는 권력구조에 분노한다. 그리하여 그는 감춰진 사회모순을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부당하게 부와 권력을 누리는 자들의 횡포를 응징할 것을 다짐한다. 이와 같이 오병호는 현실의 질서에 과감하게 맞서서 싸우는 투사적 인물로 성격화된다. 그는 주어진

14) R. Scholes & R. Kellog, *The nature of narra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New York, 1966. pp.188-90. 이들은 인물의 성격화가 서술자의 단성적 수사에 의존하면 로망스(romance)에, 그리고 인물의 내면 심리에 의존하면 리얼리즘 서사 즉 현대소설(novel)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5) 이브 뢰테르, 김경현 역, 『추리소설』, 문학과 지성사, 2000, 12쪽.

플롯에 종속되어 있는 전형적인 탐정이 아니라, 자신의 플롯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입체적인 인물에 해당한다. 이런 입체적인 인물은 장르 공식에 충실한 고전적 추리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16]

한편 『최후의 증인』이 고전적 추리소설의 공식을 일탈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범인에 관한 정보를 끝까지 유보해야 하는 공식을 위반하면서, 서사의 중반에서 범인에 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서사의 중반에서 밝혀진, 황바우의 아들 황태영은 두 사람이나 죽인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응징할 수 없는 '무죄한 범인'으로 판명된다. 범인의 무죄가 밝혀지고 피살자들의 음모와 계략에 의해 범인으로 몰린 역사적 정황이 밝혀진 상태에서 탐정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고전적 추리소설의 경우라면, 탐색의 서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병호는 황바우와 황태영의 억울함을 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천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최후의 증인』이 추구하는 서사 원리는 단순히 미스터리적인 범인 찾기 게임에 몰두하는 고전적 추리소설과 달리 사회적 환경으로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고전적 추리소설에서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최후의 증인』에서도 사회의 어두운 면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탐했던 악인들의 몰락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사회 정의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비록 현대사의 질곡에서 희생된 자들의 고통과 소외가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소설적 세계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하더라도, 악인들의 몰락과정을 지켜보는 독자로 하여금 '정의는 언제나 회복될 수 있다'는 감상주의에 빠지게 만든다. 한편 오병호는 "나는 영웅심에 사로잡힌 놈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란 말이다. 한낱 쓰레기 같은 자식"[17]이라

16) Mieke Bal, *Narratology :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Translated by Christine van Boheeme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Toronto, 1985, p.139

울부짖으며 끝내 자살하고 만다. 사회악에 저항하여 끝임 없이 투쟁했을지라도 악의 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절망과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사악한 사회에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악에 연루된 채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되는 과정은, 마치 비정파 추리소설에 나오는 감상주의적 환멸에 빠진 탐정의 심리적 내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18]

이와 같이『최후의 증인』에서 탐색의 서사는 명민한 탐정에 의해 분단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우리들의 초상을 발견하는 과정과도 맞물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우리에게 탐정의 극단적 환멸감으로 인해 굴절된 현대사에 대한 손쉬운 환멸적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나아가 부조리한 우리의 현대사회에 대한 감상주의적 반응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테리 이글턴이 지적한 바대로, 이 작품은 독자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범위 내에서만 사회를 반영하는 추리소설의 한계를 여실히 안고 있다.[19] 즉 소설적 세계가 과거의 역사적 배경과 연루되어 있고, 살인 사건의 이면에 전쟁 이후 분단 이데올로기가 내재해 있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의 비극적 상처와 부조리에 치열하게 대응하는 힘을 주지 못한 채 손쉽게 독자들을 위안하려는 감상적 태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변용 추리소설과 탐색소설의 비교

오늘날 추리소설이나 추리 기법을 활용하는 소설이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현대사회가 아이러니의 시대임을 반영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악에 대

17) 김성종, 앞의 책 하권, 314쪽.
18) 슬라보예 지젝, 김소연 · 유재희 역,『삐딱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1995, 126-131쪽.
19) 에르네스트 만델, 앞의 책 , 5쪽 .

해 도덕적 미덕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멜로드라마적 추리소설, 추리 기법을 통하여 사회의 적은 사회 내부의 부패한 정신임을 보여주는 풍자, 속물근성과 중상모략에 빠져 있는 천박하고 경솔한 사회를 묘사하는 희극 등의 아이러니 문학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 그 자체가 아이러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0] 이처럼 삶의 본질과 기원을 탐색하는 현대소설이나 수수께끼를 통하여 인간과 사회의 이면을 밝혀내는 추리소설은 불확실성 시대에 확실성을 지향하는 현대인들의 아이러니적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한편 한국 추리소설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래성은 추리소설의 미적 요소를 추리미(탐정미), 기괴미, 범죄미, 공포미(전율미), 모험미, 과학미, 불안미, 기지미, 잔인미, 공상미, 환상미의 11가지 항목으로 예시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추리미만을 강조하는 협의의 고전적 추리소설의 범위를 벗어나 인간성을 고창한 예술적 양식을 담아내는 광의의 추리소설, 즉 변용 추리소설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통의 고전적 추리소설에서는 범죄를 둘러싼 미스터리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으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묘사나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변용 추리소설을 써야 한다고 역설하였던 것이다.[21]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변용 추리소설은 추리소설과 현대소설(김래성의 용어로는 일반소설)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변용 추리소설의 소설적 의의에 대해 추리소설의 외연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소설에 추리 기법을 접목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추론해낼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앞 장에서

---

20) 노스롭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 69-7쪽.

21) 김래성, 「탐정소설론」, 『새벽』, 1956. 3, 124-127쪽. 김래성은 추리소설을 이루는 미적 요소를 11 개로 항목화하고, 한 작품에서 이것이 다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기질에 따라 몇 가지 항목이 강조된다고 주장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다. 곧 작가는 대표적인 변용 추리소설에 해당하는 『최후의 증인』에서 고전적 추리소설의 인물과 플롯의 공식에서 벗어난, 작가의 역량에 따라 인물의 역할과 플롯의 전개를 변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추구하였다. 동시에 논리적인 추리 형식에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내면적 대응을 중시하는 현대소설적 특성을 접목하였다.

그렇다면 변용 추리소설의 소설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는 이 논문에서, 변용 추리소설이 현대소설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문학사적 접근을 통하여 방대하게 입증되어야 할 작업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현대소설 가운데 변용 추리소설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는, 즉 추리소설의 기법을 차용하여 현실적 삶의 모순을 밝혀내는 탐색소설과의 비교를 통하여 유사성과 차이성을 살펴보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그 단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소설에서 미스터리적 서스펜스, 인물과 관련된 정보의 지연, 거리화 등 추리소설의 기법을 차용하여 탐색적 속성을 강화하려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22] 이와 같이 추리소설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소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일군의 현대소설을 탐색소설이라 칭하고자 한다.

탐색소설은 작가의 일방적 권위를 내세우는 과거의 소설과 달리 독자의 능동적 개입을 허용하는 현대소설의 특성을 반영한다. 소설을 작가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 모델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나 작가 중심의 문학 연구에서 독자 중심의 문학 연구를 확립한 독자반응 비평 역시, 문학 작품 읽기가 곧 작가의 일방적인 서술 방식이 아니라 작가와 독자 사이의 소통적 대화로 보는 인식지평의 전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문학적 소통에서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작품 읽기의 과정은 작가와 독자 사이의 긴장감

22) Credric Watts, *The Deceptive Text : An Introduction to Covert Plots*, Sussex : The Harvester Press, 1984, p.35f

넘치는 게임으로, 심지어는 에로틱한 행위로 비유되기도 한다.[23] 이렇게 텍스트 안에 독자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여백을 만들어 놓고 독자와 게임을 벌이는 식의 탐색소설의 서사 전략은 독자로 하여금 정보 게임을 즐기도록 호기심을 유도하는 추리소설의 전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살인과 같은 폭력은 간악한 개인이 정의로운 사회에 가하는 공격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악이라는 하나의 징후로 읽힌다. 때문에 삶의 본질을 탐구해 가는 탐색소설은 탐색의 형식과 추리의 기법을 활용하여 불확실성의 시대에 확실성을 지향하는 현대인들의 해갈될 수 없는 갈증을 잠시나마 해소시켜주는 기능을 갖는다. 추리 기법을 활용하여 삶의 본질과 기원을 추적하는 형식을 취하는 탐색소설이 증가하는 추세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탐색소설의 대표적인 작가로 알려진 이청준은 '지적 작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독자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동반의 관점'으로 함께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미지의 세계로 탐구해 들어가는 추적의 모티프를 즐겨 활용하였던 데 있다.[24]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소설적 세계가 주로 진실과 진실의 배반, 인간과 인간의 배반이라는 불화의 세계관을 통하여 제도와 인간의 대립적 구조를 관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의 특징에 있다.[25]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문의 벽」은 이청준의 이러한 작가적 특성을 고스란히 담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신체제 하의 절대적 권력의 횡포 속에서 작가로 살아가야 하는 실존적 고뇌를 추리기법으로 잘 풀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23) Peter Brooks, *Reading for the Plot : Design and Intention in Narrative*, New York : Random House, 1984, pp.13-32

24) 정과리, 「용서, 그 타인됨의 세계」, 『김치수의 이청준론』, 삼인행, 1991, 75-102쪽.
김치수, 「언어와 현실의 갈등」,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103-22쪽.

25) 김병익, 「진실과의 갈등」, 『김치수의 이청준론』, 삼인행, 1991, 182-93쪽.

우선 탐색소설「소문의 벽」은 '탐색의 서사'와 '범죄의 서사'라는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누구에 의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추리해야 하는'수수께끼 제시 → 논리적 추리과정 → 수수께끼 풀기'라는 공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추리소설의 공식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범죄의 서사'의 주체에 해당하는 박준이 절대로 자기 입으로 사건의 전말을 밝히지 않고, 다만 탐정 역할에 해당하는 '나'를 통하여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다는 점 등도 추리소설과의 공통점을 보여준다.

추리소설의 탐정에 해당하는 '나'는 박준이란 소설가가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구하는 '진술 거부증'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규명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추리소설의 탐정과 달리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내야 할 직업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베일에 가려진 '범죄의 서사'를 완전히 풀어내어 독자에게 확연하게 설명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 그가 탐색의 서사에 발을 들여놓게 된 동기는, '도대체 작가들이 무슨 이유로 그처럼 한결같이 글을 쓰지 않으려는 것인가?'라는 편집장으로서의 존재론적 질문과 맞물려 호기심이 발동한 데서 시작된다.

이처럼 화자인 '나'가 탐색의 서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연한 계기에서 비롯된다. 그는 '십여 일' 전쯤 깊은 취중에 얼굴도 성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내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돌발적인 사건을 계기로 혼란스러운 일에 빠져들게 된다. 그는 탐색의 서사를 진행하는 주체답지 않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그를 나의 하숙방까지 끌어들일 생각을 먹게 되었는지, 스스로 납득할 만한 동기가 떠오르질 않는단 말이다."[26]라는 독백과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되짚으면서 경계의 태도를 취한다. 또한 '하지만 그 이유는',

26) 이청준,「소문의 벽」,『매잡이』, 민음사, 1980, 15쪽.

‘그런데’. ‘왜 그런가’ 등의 유보 접속사를 빈번하게 사용하며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화자가 쉽사리 박준에 관한 탐색을 늦추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화자는 자신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그럴만한 이유나 느낌이 있지만 아무래도 잘 모르겠다’는 식의 독백을 빈번하게 내비치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주저하는 듯한 유보적인 태도를 반복하거나, 어떤 필연적인 이유에 대한 예감을 빈번하게 내비침으로써, 독자들의 갑갑증이 증폭되고 결과적으로 박준의 수수께끼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화자와 함께 할 탐색이 의혹에 가득 찬 모험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탐색소설 「소문의 벽」에서는 탐색해야 할 대상이 흉악한 살인의 동기가 아니라, 박준이라는 전도유망한 소설가가 소설을 쓰지 않게 된 원인을 찾아내는 데 있다는 점에서 추리소설과 다르다. 서사 진행이 화자의 ‘필연적 이유에 대한 어떤 예감’을 따라 계속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때문에 박준의 서사는 이미 완료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탐색의 서사와 함께 진행되는 현재적 사건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의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추리소설의 탐정과 달리 화자는 짐짓 우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인 ‘나’가 탐색에 나서야할 논리적인 명분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즉 화자는 잡지사 편집장으로서 마감날이 다가와도 신통한 작품 하나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던 차에, 취중에 우연히 하룻밤을 같이 보냈던 범상치 않은 ‘낯선 사내’의 정체가 ‘박준’이라는 소설가임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탐색 대상이 분명하게 문면에 드러나게 된다. 박준이란 소설가가 왜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지, 진술거부증을 앓고 있는지 등의 미스터리는 서두에 제시되었던 ‘작가들이 글을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한 화자의 실존적 의문과 일치하면서, 본격적인 탐색의 서사가 진행된다.

이처럼 화자가 궁금했던 미스터리, 즉 '왜 작가들이 글을 쓰지 않게 되었는가'와 관련된 답은 소설가 박준의 이야기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러나 박준이 왜 소설을 쓰지 않고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미스터리의 답은 다시 박준이 쓴 소설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서사의 구조는 탐색의 서사와 범죄의 서사로 나뉘면서, 동시에 범죄의 서사를 풀기 위해 또 이야기를 풀어야 하는 액자구조 형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후의 증인』의 서사가 탐색의 서사와 범죄의 서사라는 이중의 액자구조라면, 「소문의 벽」의 서사는 화자의 탐색의 서사 안에 박준의 서사, 박준의 서사 안에 다시 박준이 쓴 소설의 서사라는 삼중의 액자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소설의 서두에서 제시되는 화자와 독자의 갑갑증은, 바로 화자가 왜 박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삼중의 액자구조로 둘러싸여 있는 서사구조에서 기인된다. 이런 갑갑한 진행이야말로 이청준의 신중한 탐색과 진실 추구 정신에 가장 부합된 이야기의 짜임이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27]

화자의 탐색 대상이 박준이 소설을 쓰지 않게 된 이유를 찾는 것으로 대치됨에 따라 '그런 일이 누구에 의해 일어났을까?'라는 (범죄) 행위를 둘러싼 미스터리에 머물지 않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물음, 즉 인간과 운명 사이의 비극적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된 이해할 수 없는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한 탐색으로 확대된다. 화자는 의사의 설명에 따라 박준이 소설을 쓰지 않게 된 이유가 전짓불 공포증이나 진술 공포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알아냈고, 아울러 박준의 소설(「괴상한 버릇」과 「벌거벗은 사장님」)을 통하여 고통과 압력의 상황 아래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작가의 사명에 좌절하고 실패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

27) 신동욱, 「진실을 탐색하는 이야기꾼」, 『김치수의 이청준론』, 삼인행, 1991, 16쪽.

서사의 핵심인 박준에 관한 수수께끼는 풀렸지만, 서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탐색소설의 특성이 있다. 즉 탐색의 목적은 박준과의 대화를 통하여 박준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정신병원 의사인 김박사나 잡지사의 안형 역시 박준을 비롯한 소설가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억압적인 소문의 벽'임을 밝혀내는 데 있다. 김박사나 안형은 작가의 양심적 진술을 외면하거나 억압하는 사회와 시대적 억압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며, 그들은 오로지 시대가 요구하는 진술을 강요하는 강압적 사회의 상징적 인물들이다. 즉 작가로서의 양심을 지키려는 박준의 원고는 안형의 검열에 걸려 거부당하였고, 진술 거부증에 걸린 박준에게 김박사는 집요하고 잔인할 정도로 스스로 진실을 밝힐 것을 강요한다.

화자의 탐색이 억압적 사회에서 미치광이로 살아가는 박준의 진실을 캐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문제의 핵심이 박준을 미치광이로 몰게 만든 사회에 내재해 있음을 밝혀내는 것으로 진행된다. 화자는 2년 전 신문에 실린 박준의 인터뷰 기사와 박준이 실종되기 직전의 소설인 「전짓불 관련 이야기」를 통하여 진술 공포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유년기의 전쟁 체험에서 비롯된 전짓불의 공포와 그 뒤에 숨어 있는 정체불명의 공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박준의 어린 시절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흔의 원인이 되었던 전짓불은, 작가로 살아가는 현시점에 와서도 여전히 작가의 양심적 진술을 차단하는 소문이나 사회적 관습으로 작동하는 전짓불이 되어 작가의 진술을 방해하는 공포로 살아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박준이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유가 확연하게 밝혀짐에 따라, 자연스레 잡지사에 원고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 이유도 분명하게 밝혀졌다.

탐색의 서사가 끝이 나면 모든 서사가 종결되고 탐정의 입을 통하여 범죄의 서사에 대한 전말을 알게 되는 추리소설의 순환구조와 같이, 「소문의 벽」에서 화자인 '나'는 박준을 비롯한 작가들이 소설을 쓰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확연하게 밝혀냈다.[28] 그러나 박준이 정신병원을 탈출하여 행방이 묘연해짐에 따라, 「소문의 벽」의 서사는 이 닫힌 순환구조에서 벗어나 여전히 혼란스럽고 미스터리한 현실에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멜로드라마적 추리소설과는 다르다. 화자인 '나'와 독자들은 박준이 작가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현실로부터 탈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그리하여 '나'는 서두와 마찬가지로 작가들이 글을 쓰지 않는 현실에서 잡지일로 인하여 더욱 더 고충에 시달릴 것이고, 그 허탈감에서 위안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술에 취하여 박준이 다시 나타나는 씁쓸한 환상을 품는 화자를 바라보면서, 독자들은 양심적 진술을 해야 하는 작가로서의 의무와 이를 가로막는 전짓불의 억압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 시대의 양심에 직면하게 된다. 아울러 강압적 현실을 깨진 유리에 비추며 진지하게 성찰하도록 요구하는 작가의 날카롭고 진정한 문제의식과 만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탐색소설 「소문의 벽」에서는 분명히 추리소설의 탐색 서사와 추리 기법을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탐색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굴절된 우리의 현대사에 닿아 있기에 탐색 과정이 결코 오락이나 게임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우리의 현대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비극적인 정조를 띤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탐색소설 「소문의 벽」은 추리소설과 달리 미스터리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고, 또한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상적 선에 따라 악한 인물을 징계하는 멜로드라마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즉 선부르게 정의가 회복될 것이라는 감상적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범주 안에서 사회를

28)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122쪽.

반영하였던『최후의 증인』과는 확연하게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스터리한 인간 행동의 동기와 사회적 억압과의 모호한 관련성과 비극성에 대해 작가 나름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를 반영하는 소설의 형식도 점차 바뀌고 있다. 공식을 철저히 지키는 장르소설의 하나인 추리소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애거서 크리스티가 그의 마지막 작품『커튼』에서 탐정의 죽음을 선포한 이래 탐정이 등장하지 않는 추리소설이 등장함에 따라, 범죄 행위의 심리적 측면에 역점을 두는 범죄 심리소설이 선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현대소설에서 추리 기법을 차용하는 등 추리소설로 틈입해 들어오는 현상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추리 기법을 수용한 소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앞으로 추리소설과 현대소설을 구분 짓는 경계마저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앞선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추리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서구의 고전적 추리소설의 공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성종의『최후의 증인』을 중심으로 변용 추리소설의 소설적 의의를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최후의 증인』이 고전적 추리소설과 다른 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추리 기법을 활용한 현대소설과 만나는 지점을 밝히기 위해 대표적인 탐색소설로 알려진 이청준의「소문의 벽」과 비교 분석하였다.

『최후의 증인』은 살인 사건을 탐색해가는 추리소설적 요소 위에 우리 사회의 모순된 현대사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접합시켜 놓은 독특한 변용 추리

소설에 해당한다. 텍스트 표면에 존재하는 탐색의 서사를 근간으로 하되 텍스트 이면에 존재하는 범죄의 서사에 인간의 삶이 굴절되는 현대사의 어두운 측면을 반영하였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고전적 추리소설이 지니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삶의 복잡한 양상에 대한 통찰적 시각을 담지하고 있다. 이처럼 『최후의 증인』은 독자의 호기심을 담보로 범인의 정체를 밝혀나가는 탐정의 탐색 과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살인자가 살인에 가담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비극적 운명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극적 정조가 강하다. 이러한 비극적 정조는 사회적 모순과 역사적 아이러니에 대한 분노와 강한 저항감을 지니는 탐정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즉 탐정의 탐색 과정은 분단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우리들의 초상을 발견하는 과정과도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이 분명하게 대립됨으로써 악의 인물이 응징되고 선의 인물이 좌절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부조리한 우리의 현대사회에 대한 감상주의적 반응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추리소설의 형식을 차용한 탐색소설 「소문의 벽」에서는, 탐정에 해당하는 인물과 범인에 해당하는 인물의 서사가 구분되어 있고, '누구에 의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추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이 전적으로 탐색하는 인물에 의해 밝혀진다는 점에서 추리소설적 특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선과 악의 대립각이 분명한 변용 추리소설과 달리, 선악의 이분법적 멜로드라마 구도를 벗어나 있다. 탐색의 서사가 끝이 나더라도 모든 사건을 선명하게 마무리를 짓는 추리소설과 달리 현실은 혼란스럽고, 인물들은 처음의 상황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여전히 미궁과도 같은 현실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하여 추리소설의 독자들이 기대함직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감상적 환상은 차단되고, 현실에 대한 냉철한 통찰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변용 추리소설과 탐색소설은 사건 해결의 방법론적 측면과 조사의

합리성에 비중을 두는 고전적 추리소설의 틀을 차용하고 있지만, 범죄에 연루된 인물들의 비극적 삶과 사회적 조건에 대한 성찰에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변용 추리소설은 추리 형식 위에다가 사회에 밀착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적 대응을 접합시킴으로써, 추리소설의 공식을 해체하고 추리소설의 외연을 개척한 문학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추리 기법을 활용한 탐색소설 역시 현대소설의 형식을 다양하게 실험한 시도라는 문학적 의의를 지니며, 소설의 범위를 확장시켜 놓았다는 데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살인의 동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변용 추리소설의 범주도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 『최후의 증인』과 같이 사회적 모순과 갈등으로 빚어진 현상을 추리 기법으로 탐색하는 사회파 추리소설 외에도, 추리보다는 등장인물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과정에 중점을 두는 범죄소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등장인물의 심리적 공포감에 관심을 두는 서스펜스소설 등 그 폭이 다양하다. 또한 추리 기법을 활용한 탐색소설 역시 이청준의 작품 외에도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구효서, 이명행, 윤대녕, 이인화, 장태일, 김영하 등 많은 작가들이 속속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필자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못한 범죄소설이나 서스펜스소설을 살펴보는 작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다양한 탐색소설을 아우르는 작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KCI

참고문헌

김래성, 「탐정소설론」,『새벽』, 1956. 3, 127쪽.

김치수 외,『김치수의 이청준론』, 삼인행, 1991.

김치수,『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노스롭 프라이, 임철규 역,『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

슬라보예 지젝, 김소연 · 유재희 역,『삐딱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1995.

에르네스트 만델, 이동연 역,『즐거운 살인 : 범죄소설의 사회사』, 이후, 2001.

월터 옹, 이기우 · 임명진 역,『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0.

이상우, 「추리소설, 다시 독자의 관심 속으로」,『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한국추리작가협회 엮음, 태동출판사, 2002, 69쪽.

이브 뢰테르, 김경현 역,『추리소설』, 문학과 지성사, 2000.

이정옥, 「1950,60년대 추리소설의 구조분석」,『현대문학이론연구』15집. 2001. 6, 191쪽.

정규웅,『추리소설의 세계』, 살림, 2003.

토로로프, 신동욱 역,『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최애순, 「이청준 소설의 추리소설적 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Credric Watts, *The Deceptive Text : An Introduction to Covert Plots*, Sussex : The Harvester Press, 1984.

Jerry Palmer, *Potboilers : Methods, Concepts and Case Studies in Popular Fiction,* Routledge : London & New York, 1991.

Mieke Bal, *Narratology :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Translated by Christine van Boheeme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Toronto, 1985.

Peter Brooks, *Reading for the Plot : Design and Intention in Narrative,* New York : Random House, 1984.

R. Scholes · R. Kellog, *The nature of narra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New York, 1966.

Abstract

Meaning as novel of metamorphic detective novel

- centering comparison between『The last witness』and『A wall of rumor』

Lee, Jung-Oak & IM, Song-La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meaning as novel of metamorphic detective novel. For this purpose, I have analyzed the point which classical detective novel and *The last witness* are different. *The last witness* by Kim Song Jong is evaluated with representative metamorphic detective novel. And to investigate the point that metamorphic detective novel and modern novel are overlapped, I have compared *The last witness* with *A wall of rumor* by Lee Chung Jun, which was known with representative inquiry novel.

The last witness has not only characteristics of classical detective novel that searches the cause of crime focusing on the contemporary social reality, and but also takes elements of metamorphic detective novel which grafts a critical eye on the contradictory contemporary history of our society together, while the latter has an unique structure, pursuing the cause of crime. Consequently, on the one hand it has the tension which the detective novel keeps, on the other has an insight into the complicated aspect of human being life.

In *A wall of rumor* as inquiry novel, it is divided into two narratives of a

detective and a criminal. And it shares characteristics of detective novel in which the course of events is exposed only by a character as inquirer. In opposition to detective novel, inquiry novel is free from melodramatic structure in which good and evil is set up against each other. Also inquiry novel obstructs reader's sentimental fantasy about realization of justice, induces reader to calm insight into the realities. The meaning of metamorphic detective novel is to de-construct the formula of classical detective novel, to extend the range of detective novel. As a way of questing for the true nature of life, the narrative method of modern novel is derived from that of the detective novel such as 'quest and chase'. Therefore, considering detective novel's power of influence over modern novel, metamorphic detective novel has literary meaning in the point it contributes to broaden range of the novel.

Key Words

metamorphic detective novel, classical detective novel, inquiry novel, motive of murder, deviation of formula

* 위 논문은 2005년 11월 15일 투고되어, 11월 28일 심사 완료 후, 12월 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KCI